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결실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생명의 사랑에서 와서... 불에서 살아나게 할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October 24,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교독문 26번 - 시편 50편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찬 송 / 324장 - 예수 나를 오라하네 / 1, 4절  
(통일찬송 360장)  
주님 가르치신 기도

## 헌신과 나눔

찬 송 / 510장 - 하나님의 진리 등대 (통일찬송 276장)  
찬 송 / 368장 - 주 예수여 은혜를 (통일찬송 486장)  
봉 헌 / 최내권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 말씀과 결단

찬 송 / 484장 - 내 맘의 소망 되소서 (통일찬송 533장)  
성경말씀 / 요나 4:5-11  
하나님의 맞춤형 교육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삶과 세상으로

찬 앙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예배소서 6:10-20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전신갑주

건강하게 사랑할 수도 없는데,  
그분은 주님의 마음을 받으셨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진심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을 부으소서.

어려운 상황과 사람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먼  
저 말씀을 충분히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탕자를 기다리는 강인한 사랑으로,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여 회복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헛된 것들 속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수이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7)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h:9 말씀부서

“...가리키어 주시리라”



‘보통 “기도할게!”하고 위로하지만, 잊을 때가 많은데요. 세계 큰 도전을 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기고, 몸도 아파서 그분에게 조심스레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분도 여러 일이 많으신데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조용히 절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은 저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그분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하시는데요.

센 사람의 고집을 무조건 받아주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 기도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표했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 주셔서 기도할 뿐이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티내지 않고, 영적인 척 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내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수도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망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합심기도 점심신교 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오후 1:30)
- 사역훈련 12 주간의 안수집사 교육이 계속 됩니다.  
(1:45 p.m. 컨퍼런스 룸)
- 성경 읽기 매주 성경읽기 (소요리문답) 문제로 훈련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니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교회 이전, 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니다.

10월의 사역 - Post Covid-19를 위한 기도모임(10월)  
선교 주간(24-30) 선교 주일(31)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훈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임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서 예배처소 이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10/24	10/31	11/7	11/14
주일예배기도	구은강집사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10/24	10/31	11/7	11/14
주일헌금위원	최내권집사/오정은집사	구 민집사/최선윤집사		
	10월		11월	
주일안내위원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하나님의 용서와 요나의 반응 / 요나 4:1-5**

요나가 전한 심판의 경고에 니느웨는 회개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 요나는 분노한다. 편견과 독단에 빠져 이웃도 하나님도 멀리했다. 40일이 지나기까지 니느웨가 과연 어떻게 되나 결말을 지켜보자며 성 밖에 초막을 지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 한심한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 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이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미움, 다툼, 질투를 버려야한다. 이런 나쁜 감정들은 자신을 해롭게 하며 영성을 갉아먹는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민감하여 그 뜻에 따라 가며,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신앙을 굳게 해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 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면 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결국 이웃의 아픔을 기뻐하고, 이웃의 기쁨에 분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신자가 되면 않는다.

하나님의 맞춤형 교육 / 요나 4:5-11

실물교육 자료들

박 넝쿨, 넓은 잎들과 그늘, 뜨거운 동풍

하나님의 질문

허룻밤 사이 생명력을 잃은 박, 넝쿨과 잎이 소중한가?

그렇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니느웨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자.

하나님의 맞춤형 교육 / 요나 4:5-11

요나서는 하나님의 실물교육으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박넝쿨, 벌레와 열풍(뜨거운 바람)으로 가르쳐 주신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 그 결과, 생사의 갈림길에 선 배에서 바다로 던져졌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다. 그럼에도 요나는 마지못해 순종하는 척만 했다. 최소 3일이 필요한 사역을 겨우 하루 만에 마쳤다. 니느웨에 대대적인 회개운동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노했다.

초막을 지어 니느웨를 지켜보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교육도구를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육 도구는 박 넝쿨,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었다. 박 넝쿨이 빠른 속도로 자랐고, 넓은 잎들은 요나의 초막 위를 덮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 하셨던" 벌레가 그 박 넝쿨을 갉아먹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박 넝쿨과 넓은 잎들이 순식간에 말랐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되었다. 잠에서 깬 요나는 사라진 그늘과 뜨거운 바람과 햇볕 때문에 괴롭워한다. 심히 괴로워한 요나는 결국 죽음을 간구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한다.

요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었다. 괴로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고 물으셨다.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요나는 분노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가 재배하지 않은 박넝쿨을 아낌에도 니느웨에는 아무런 자비심이 없음을 지적하셨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극치였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 만을 생각했다.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진 박 넝쿨과 그늘을 안타까워한다면, 옹당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용서를 받은 니느웨 때문에 기뻐해야하지 않는가. 유아만 12만명, 니느웨의 60만 정도의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지를 생각해야지 않는가. 요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에 빠졌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존 캘빈이 말한 "teachable heart," 즉 하나님이 가르치실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박 넝쿨과 벌레로 요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만인, 무엇 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신다. 문제는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나이, 계층, 환경과 같은 핑계를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기쁨으로 배우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